

추락 독일 여객기 탑승자 150명 전원 사망

알프스 산악지대서...한국인 피해자 확인 안돼

승객 이름·이메일로 예약 희생자 파악 어려움

외교부는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한 독일 저먼윙스 항공기 사고와 관련, 25일 오전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관련 공관들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현재(한국시간 25일 오전 6시 기준) 우리 국민 피해자는 아직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고기 노선을 포함해 추락 이후 여러 상황을 볼 때 한국인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

려졌다.

독일 저가항공사 저먼윙스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독일 뒤셀도르프로 가던 중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했으며 탑승객 150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현지 당국이 파악했다.

한편 추락한 독일 저먼윙스 소속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들의 국적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독일과 스페인 등 각국 정부가 희생자 국적 파악에 애를 먹는

이유는 유럽 국가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쟁쟁조약 때문이다.

저먼윙스 측은 사고기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는 쟁쟁조약 적용 항공기였으며 승객 이름과 이메일 주소로만 예약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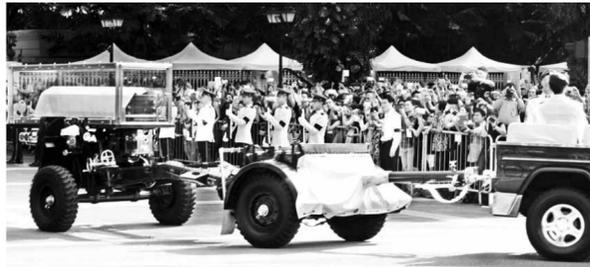
토머스 빈켈만 저먼윙스 최고경영자(CEO)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항공기의 어디에 앉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며 “모든 희생자의 국적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대로 공표하겠다”고 말했다.

항공사가 따로 여권정보를 수집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국은 탑승자 이름을 바탕으로 국적 파악을 시도하고 있다.

저먼윙스 등에 따르면 탑승자 150명 중 독일 국적자가 67명이며 스페인인 45명, 호주인 2명, 네덜란드와 터키, 벨기에, 덴마크인이 각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스페인 정부는 이름이 스페인식인 탑승자가 총 45명이라는 이유로 자국 희생자 수를 추정했다. 영국 외무부는 자국민 몇 명이 사고기에 탑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P통신이 전했다.

쟁쟁조약은 유럽 내 국가를 이동할 때 여권검사를 하지 않고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1995년 채택된 국경개방 조약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다수와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등 모두 26개국 가입돼 있다.



고 리관유 전 총리의 관을 실은 운구차. 운구차는 25일 오전 9시40분께 이스타나 대통령궁 정문을 출발해 국민의 조문을 받기 위해 의사당으로 향했다.

“댕큐 파더, 잊지 않겠습니다”

리관유 싱가포르 전 총리 시신 의사당 운구...국민들 조문

리관유(李光耀) 전 싱가포르 총리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가 이스타나 대통령궁에서 가족 애도 기간을 마치고 국민 조문을 받기 위해 의사당으로 운구된 25일 오전 이스타나 궁 밖에 몰려든 수천명은 이렇게 외쳤다. 일부 장년 남성들은 목이 터져라 “댕큐 파더”를 연이어 외쳐 마치 리 전 총리를 떠나보내지 않겠다는 절규처럼 들렸다.

리 전 총리의 시신은 오전 9시께 이스타나 궁 내 공식 총리 관저인 스텔라 테마에서 육군, 공군, 해군, 경찰 8명에 의해 예포가 달린 운구차에 실렸다. 그의 관은 국가 영웅에게 갖추는 최고의 예우에 따라 싱가포르 국기로 덮였다.

리 전 총리의 관은 대형 유리 상자에 넣어 군악대가 베토벤의 장송행진곡을 연주하는 가운데 의사당으로 출발했다. 이스타나 궁 내부에서 거행된 예식에 서 그의 장남인 리셴룽(李顯龍) 총리 등

리 전 총리의 가족들은 약 70m를 운구차를 따라 걸었으며 이스타나궁 본관물 앞에서는 토니 탄 대통령과 고속동 전 총리 등이 운구차를 맞았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리 전 총리의 관을 실은 운구차가 이스타나 궁 밖으로 나오자 기다리고 있던 시민들은 눈물을 흘리거나 국기를 흔들었다.

또 많은 군중들이 국기로 덮인 리 전 총리의 관을 카메라에 담기 위해 한꺼번에 스마트폰을 든 손을 공중으로 번쩍 들어올려, 마치 그에게 일제히 경의를 표하는 것 같은 장면이 연출됐다. 안티 양 안(43·여·회사원)씨는 “회사를 하루 쉬고 리관유를 애도하기 위해 나왔다”며 “싱가포르 그 자체였던 리관유의 마지막 길을 직접 배웅하는 것이 그가 나라를 위해 한 일에 대한 최소한의 감사 표시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놓았다.



추락 여객기 수색작업 24일 오전(현지시간) 독일 저가항공사 저먼윙스 여객기가 추락한 프랑스 남부 세인 레 잘프스 부근 해발 1500m 높이의 알프스 산악에 구조대원들이 시신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후쿠시마, 30~40년후 원전해체 목표

■ 日 대지진 참사 4년 경과...장기전 모드

오염수 차단벽·대형식당 가동 임박

2011년 3월11일 동일본대지진으로 대형 사고가 난지 만 4년이 경과한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24일 둘러본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폐로(원전 해체)까지의 장기전을 위한 ‘진지 구축’ 작업이 한창이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말 1~4호기의 원자로 압력용기 바닥 부분 온도

15~20℃, 핵연료 저장 수조 온도 8~27℃를 유지하며 이른바 ‘냉온정지’ 상태를 달성한 뒤 사용 후 핵연료 저장 수조의 연료를 꺼내는 폐로의 제1단계 작업을 2013년 12월부터 진행 중이다.

앞으로 10년 안에 원자로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 잔해를 꺼내는 작업을 시작한 뒤 완전히 폐로 하기까지 30~40년간의

장기전을 치른다는 목표로 주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후쿠시마 제1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이날 투어에 참가한 기자들에게 하루 평균 7000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의 식당 및 휴식처가 될 ‘대형 휴게소’의 막바지 건설 현장을 가장 먼저 공개했다.

앞으로 1~2개월이면 가동될 지상 9층의 대형 휴게소는 12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원전에서 서쪽으로 9km 떨어진 곳에 최근 완공된 급식센터에서 하루 3000명 분의 식사를 만들어 대형 휴게소에서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

원전 단지 안에서 직원들이 여유가 있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현장 환경이 개선된 것은 ‘진전’이었다. 이어 둘러본 동토차수벽(凍土遮水壁) 공사현장은 원자로 뒤 산(山) 쪽의 경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4~5월께 시험 동결을 앞두고 있었다.

동토차수벽은 총 1.5km에 달하는 원자로 1~4호기 주위를 한바퀴 두르는 형태로 지하 30m 깊이까지 동결관을 촘촘히 박은 뒤 관에 염화칼슘 용액을 넣어 영하 30℃ 정도로 얼리는 고난도 프로젝트다. 동결관 주변의 땅을 얼음처럼 단단하게 굳힘으로써, 원자로 건물로 지하수가 유입돼 오염수 총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도쿄전력은 기대하고 있다.

광둥성·텐진시·푸젠성 3곳에

새로운 자유무역구 건설 승인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 심의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광둥(廣東)성, 텐진(天津)시, 푸젠(福建)성에 새로운 자유무역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공식 승인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24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 주재로 회의를 열어 3개 지역에 자유무역구 시범구를 건설하는 계획을 심의해 통과시켰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5일 보도했다.

또 기존의 상하이(上海) 자유무역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계획도 통과시켰다. 중국 지도부는 이런 결정에 대해 “‘뉴 노멀’(New normal·신정태이(新常态)) 시대 전면적 심화 개혁과 개방 확

대를 위한 중대한 조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지도부는 “광둥, 텐진, 푸젠 자유무역구와 확대된 상하이 자유무역구는 개혁개방과 개혁·혁신·발전의 선두 주자가 돼야 한다”면서 제도 혁신을 핵심으로 ▲‘일대일로’(一帶一路 : 육상·해상 실크로드) ▲‘징진지’(京津冀 : 베이징·텐진·허베이 등 수도권 약칭) 협력 발전 ▲장강(長江)경제벨트 구축 등 국가전략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개방형 경제의 새로운 모델 모색, 경영환경의 법치화 강화, 개혁 잠재력 발굴 등을 강조하면서 해당 지역 정부와 관련 부처에 적극적인 추진을 지시했다.

경매 투자

▶ 특수비법 배우실 분
교육비 / 임차활동비
사무실 사용료(1년) 등
2200만원

▶ 단독 / 공동투자 하실 분
자본금 - 1억원 이상
수익률 - 연 20% 이상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

화순 “전원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번지
- 임야 328평 ■ 33필지중 1필지
- 광덕교차로에서 5분거리
- 기반시설 조성중(화순군청) 2015년 5월 완공 예정
- 투자기회 좋음
- 매매가 - 1억 3120만원 (평당 4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 광주 월산동 110-18번지
- 정남향, 2013년 신축
- 내부 깨끗, 첫 입주, 즉시 입주가능
- 신우 APT 105동 옆
- 감정/시세 - 1억 9000만원
- 매매 - 1억 6400만원(대출 1억 1천만원 포함)

월산동 “광전파크” 빌라

주인직매 H. 010-3605-5000